

# 대학원 평가<sup>1)</sup>

가천대학교 교수  
채재은

## I. 논의의 배경

『2013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학원 박사과정의 입학률은 2.8%로 OECD 평균(2.7%)보다 0.1%p 높은 편이다. 이는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우리나라 보다 훨씬 먼저 근대적 의미의 고등교육제도를 발전시켜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놀란 만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양적 성장에 상응하는 질적 발전은 수반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대학 내·외부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고위공직자 청문회 개최 때마다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석박사 학위 논문의 표절 논

<sup>1)</sup> 본 원고는 2014년 6월 5일에 이루어진 「대학원 질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저자가 발표한 자료를 수정 보완한 자료임

## 이슈진단 및 분석

란은 대학원 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교육부에서는 2014년 5월에 ‘대학원 질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방안의 주요 내용은 ‘대학원 학사·학위 관리 강화, 대학원 학과(전공) 신설 기준의 강화,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인증제 시행, 대학원 정보공시 강화, 대학원 평가체제 마련’ 등이다. 이러한 방안들은 모두 대학원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특히 ‘대학원 평가’는 그 파장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학원 평가는 그 결과가 구조조정과 연계되어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대학원의 주요 현황과 교육부의 대학원 평가(안)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주요 이슈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 II. 대학원 현황

〈표 1〉에서 나타나듯이 지난 20여년간 대학원 규모는 급속도로 팽창하였다. 1990년 303개교에 불과하던 대학원이 2013년 1,157개교로 늘어났으며, 그에 따라 재학생수도 87,163명에서 321,076명으로 약 4배 정도 늘어났다. 여기에 대학원대학까지 포함할 경우 증가 규모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1 | 연도별 대학원 현황

(단위 : 개교, 명)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3
학교수	303	427	812	1,017	1,098	1,157
학생수	87,163	113,836	227,273	278,624	309,559	321,076

\* 대학원대학은 제외한 통계임

\* 자료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해당 년도), 간추린 교육통계(국문).

대학원 입학자 충원 상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2010년 100.2%로 가장 높았고 그 이후로는 다소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약 97%의 충원율을 유지하고 있다. 계열별로 살펴보면, 〈표 3〉에 나타나듯이 2013년 현재 인문사회 계열의 입학자 충원율이 57.8%로 가장 높은 반면에, 공학계열과 자연계열은 각각 15.6%, 8.4%에 불과하다.

표 2 | 대학원 입학자 충원율

(단위 : 명, %)

구분	2000	2009	2010	2011	2012	2013
입학정원	107,502	124,720	126,745	128,486	129,700	130,665
정원내 입학자수	94,079	120,088	126,958	126,872	126,116	126,860
충원율	87.5	96.3	100.2	98.7	97.2	97.1

\* 자료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2013), 간추린 교육통계(국문), p. 46.

표 3 | 2013년 대학원 계열별 학생 현황

(단위 : 명, %)

구분	인문사회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계
석사과정	165,160	35,092	16,807	26,941	19,884	263,884
	(62.6)	(13.3)	(6.4)	(10.2)	(7.5)	(100.0)
박사과정	25,648	16,215	10,787	8,962	4,326	65,938
	(38.9)	(24.6)	(16.4)	(13.6)	(6.6)	(100.0)
계	190,808	51,307	27,594	35,903	24,210	329,822
	(57.8)	(15.6)	(8.4)	(10.9)	(7.3)	(100.0)

\* 자료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2013). 간추린 교육통계(국문). p. 44.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의 진로 현황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석사학위 취득자 전체의 취업률은 62.1%이며, 대학원 유형별로는 특수대학원이 72.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전문대학원(59.3%), 일반대학원(50.8%)의 순이다.

표 4 | 석사학위 취득자 진로 현황(2013)

(단위 : 명, %)

구분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전체 비율
	졸업자	학생수	비율	졸업자	학생수	비율	졸업자	학생수	비율	
취업		16,500	50.8		6,652	59.3		28,351	72.3	62.1
진학	32,499	3,203	9.9	11,224	450	4.0	39,215	625	1.6	5.2
기타		12,796	39.3		4,122	36.7		10,239	26.1	32.7

\* 취업자 : 건강보험 DB 연계 취업자 / 기타 : 입대자, 취업불가능자, 외국인유학생

\* 자료 : 교육부(2014), 대학원 질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p. 4.

### III. 교육부의 대학원 평가(안)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원 질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대학원 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에 앞서 대학원의 교육과정, 학위수여 및 연구윤리, 연구성과, 산학협력, 교육여건 등을 점검할 계획이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대학원대학 42개교와 일반대학 대학원 중 20개교 내외를 추출하여 대학원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평가모형과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대학원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는 '기관수준(institutional level)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며, 정보공시 항목을 중심으로 대학 특성별(교육 중심·연구 중심 등), 대학원 종류별(일반·전문·특수)로 평가지표가 개발될 예정이다. 상세한 지표는 추후 개발될

## 이슈진단 및 분석

예정이며, 「대학원 질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제시된 대학원 평가 영역 및 지표 예시안은 다음과 같다. 아래와 같이 크게 6대 평가영역별(발전계획 및 경영, 교육, 학위수여 및 연구윤리, 연구성과, 산학협력, 교육여건)로 세부 지표가 개발될 예정이다. 대학원의 특성상 연구성과와 산학협력이 강조되고, 최근에 부각되는 연구윤리 부문도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 대학원 평가영역 및 지표(예시)

- 발전계획 및 경영: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거버넌스 등
- 교육: 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 개선 노력, 졸업생의 진학률 및 취업률 등
- 학위수여 및 연구윤리: 논문작성지도 및 논문심사, 연구윤리 확보 계획 등
- 연구성과: 교원 및 대학원생의 연구실적, 연구시설 등
- 산학협력: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 실적, 특허출원 및 등록실적
- 교육여건: 대학재정, 교원, 학생 총원률 등

## IV. 대학원 평가의 주요 이슈

앞서 살펴본 교육부의 「대학원 평가방안(案)」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대학원 평가의 목적과 관련된 것으로, 현재는 불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질 관리’인지, 아니면 ‘구조조정’인지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질 관리가 주요 목적일 경우, 평가인증 형태로 평가가 실시되고, 인증영역별로 최소 기준을 제시하는 형태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반면에 구조조정이 목적일 경우, 대학원의 질적 개선 보다는 정부의 구조조정 목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대학원 정원을 어느 정도 감축하느냐가 평가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 경우 대학원 구조조정을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학부 구조조정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외부압력에 의해 구조조정이 추진될 경우, 연구 편당이 적거나 SCI급 논문 산출이 적은 인문, 예체능 분야 위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학문간 균형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학부 교육과 달리 대학원의 경우 학생수 감소 보다는 부실한 대학원 운영이 주요 이슈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구조조정 보다는 대학원 질 관리 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평가인증’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대학원 평가의 범위와 관련된 것으로, 기관평가 보다는 전공별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안)에서는 교육 및 연구의 질 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준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학원 기관 수준(institutional level)의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교육 자원(교수, 시설, 재

정, 인프라 등)과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는 대학부설 대학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관평가는 평가대상인 학부 평가와 중복될 뿐이며 대학원의 질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해내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원 전공별 평가를 통해서 석박사 학위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공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연구와 교육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공별로 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대학원생의 논문 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전공단위 평가가 이루어질 때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평가지표와 관련된 것으로, 다수의 지표로서 대학원을 평가하기 보다는 대학원 질 관리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핵심 지표 위주로 평가지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지표수가 많을 경우 세밀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대학의 평가 준비 부담만 가중시킬 뿐 변별력 확보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연구력 측정을 위해서는 여러 개의 지표를 활용하기 보다는 SCI 논문수와 등재논문 수를 핵심 지표로 활용하여 대학의 평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국제적인 대학원 질 관리 기준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원의 실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국제 수준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국내 대학의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을 적용할 경우 각 대학들이 해당 지표를 무리하게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그 결과 오히려 대학원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넷째, 대학원 평가를 위한 데이터 구축과 관련된 것으로, 대학원 공시지표와 통계 시스템 정비를 선행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학부 데이터와 대학원 데이터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대학원 단위의 통계 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반대학원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특수대학원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원 통계나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단위 대학의 차원에서 상당한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단기간에 대학원 정보공시시스템을 구축하기 보다는 공시 항목들을 예고하여 대학들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미 지적되고 있는 대학정보공시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학원 정보공시체제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개별 대학에서 정보공시를 위해 투입하고 있는 높은 행정비용을 고려할 때, 수많은 대학원에 관한 정보 공시는 행정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평가시기'와 관련된 것으로, 교육부에서는 2015년에 시범평가를 거쳐 2016년부터 대학원 평가를 실시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사실상 방치되어온 대학원 평가에 대응하는 데 있어 지금까지 1년 반 정도 밖에 남지 않은 기간은 충분하지 않다. 1년 반이라는 기간은 대학원 평가인증 모델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학원 평가가 대학원의 학사, 학위 관리의 강화, 정보공시체제의 정비 등과 같은 다양한 이슈를 포함하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학들에게 자체적으로 대응할 시간을 충분히 부여한 후 본격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V. 결어

고급인재를 육성하고 지식기반경제를 선도하는 R&D 기능을 수행하는 대학원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대학원 질 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국가간 고급두뇌 개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대학원의 수준은 곧 국가의 경쟁력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원 질 관리나 평가 모두 오랫동안 방치되어온 문제인 만큼 그 해결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급할수록 천천히 가라’라는 일상의 진리를 대학원 평가체제 구축에 있어서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대학원 종류별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서 평가체제를 설계할 때 고등교육의 경쟁력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고등교육기관의 자율성 유지와 평가를 통한 책무성 확보간의 적절한 균형점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필자소개

**채재은** | 가천대학교 교수

이화여대 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에서 석사를 취득하고, 하버드대학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제66회 행정고시를 통해서 교육부에서 공직생활을 하였으며, 한국교육개발원 초빙연구위원, 국가교육과학기술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가천대학교에서 대학평가처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 논문과 보고서로는 『대학자체평가 내실화방안 연구(공저)』, 『고등교육 장기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공저)』 등이 있으며, ‘대학생들의 휴학요인 분석’, ‘The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led by private universities in Korea (공저)’ 외 다수가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고등교육정책, 개발협력정책, 평생교육정책 등이다.